

금호, 대우건설 매각 3조원 확보

LG·효성·롯데·포스코 포함 12사 관심 ... 프리미엄 20-30%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대우건설에 대해 국내외 12개 기업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8월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동 매각사인 산업은행과 노무라증권은 8월 첫째 주까지 대우건설 실사를 마무리하고 둘째 주부터 인수 후보자들에게 투자제안서(IMI)를 발송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매각에 관여하는 일부 관계자는 “국내 6사와 해외 6사가 대우건설 인수에 관심을 표명했다”며 “매각주간사가 12사와 활발하게 물밑 접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는 곳을 상대로 예비입찰을 시행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은 자산실사를 거쳐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대우건설 풋백옵션의 행사기일이 12월15일에 도래한다”며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그전에 대우건설 매각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대우건설 풋백옵션이란 금호그룹이 2006년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3조5000억원 정도를 지원받는 대신 2009년 말까지 대우건설 주가가 행사가격인 3만1500원을 밑돌면 차액을 보전해줄기로 한 계약이다.

국내 대우건설 인수후보로는 LG, 포스코, 롯데, 효성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해외에선 미국계 건설회사와 해외 사모펀드 등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대금은 3조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D증권사의 애널리스트는 “금호그룹이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20-30% 정도를 인정받아 대우건설을 매각하면 총 3조원 안팎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8/06>